

# 尹 “100년전 역사로 일본 무릎 꿇으란 생각 동의 못해”

### 방미 앞두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日和 협력 미루기엔 안보 문제 긴급 우크라 지원 당사국과 관계 고려해야 민주 “역사상 최악 대통령”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여러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민 방문을 앞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WP가 24일 보도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90분간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결정에 관해 상세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기간 그 취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엔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라며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설득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나 불복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선 우리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가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무개념 인터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대통령실 외 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 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와 함께 “한반도 100년 이내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본 총리의 망언이라 비판해도 도저히 지경의 발언”이라며 “무지로 점철된 대통령의 무개념 인터뷰에 국민들은 대통령이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문제 그 자체라고 생각을 굳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일본 총리 입장을 대통령이 나서 짚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 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느냐”며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면제 검토

### 당정 재산세 감면 방안도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

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50% 또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 등을 실무선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도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미국을 국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민 방문한다. 국민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 국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상향 건의”

### 조수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출시됐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시 연 9.4%까지 낮아지게 돼 있는데,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민생119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취업시 건강진단서 발급 무료화 등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 위원장은 전했다.

이달 초 열린 직전 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민생119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32.6%...3주 연속 하락

### 리얼미터...민주 45%·국힘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45.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이날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2.6%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3%p 오른 64.7%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 30대(3.6%p

↑), 60대(2.8%p ↑), 보수층(3.9%p ↑)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p ↑), 대전·세종·충청(3.0%p ↑), 20대(4.5%p ↑), 40대(3.2%p ↑), 70대 이상(2.7%p ↑), 무당층(4.8%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45.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6%p 오른 34.5%,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내린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2.0%p 오른 14.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www.kiturami.co.kr

보일러회사를 넘어  
종합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반도체 공장

원전발전소

잠수함

Kiturami

귀뚜라미의 50년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